



강원도, 상반기 산림예산 조기집행 최우수

강원도가 2010년 상반기 산림예산 조기집행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됐다.

도는 산림청이 전국 16개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 산림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 및 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올 연초 잦은 폭설·한파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 설계 등 강도 높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입찰제도 활용, 선금급 지급(70%), 기성급 지급 등 탄력적이고 효과적 재정운영을 하면서, 단위 사업별 추진상황을 일일 점검, 독려하고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여 1,332억원을 집행하여 재정조기집행 목표액(939억원)대비 142%의 집행률을 기록 하였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 평가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중 전국에서 양구군이 상반기 산림예산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은 산림청에서 9월 초 월례조회시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2011년도 국고 보조금예산에 강원도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소나무림 보호육성

- 소나무 2만ha, 전국 최고 산림자원으로 육성 -

강원도는 소나무가 최근 조경수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발을 빙자한 무분별한 굴취·채취 행위와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도내 분포된 소나무림 25만5천ha 중 동해안송림, 마을숲, 유전자원보호림 등 우량소나무 약 2만ha를 전국 최고의 산림자원으로 육성 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우량 소나무림의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와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 인·허가와 소나무 굴·채취허가 처리 시 철저한 검토로 부당(위장) 행위 사전 차단 등 각종 허가(협의) 신고

및 사후관리 강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지의 우량소나무 보호 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강화, 우량소나무림의 토양개량, 외과수술 등 보존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오는 8월부터 특별 기동단속반(4개반/8명)을 편성 운영하여 산지전용지, 소나무 굴·채취허가지, 동해안 송림, 마을숲 등 우량소나무림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굴·채취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나무식재지 사후관리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봄철 나무식재지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500만 원을 투입, 봄철 나무심기를 한 오라동 열안지 등 28곳 총 53ha, 16만8000그루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제거와 풀베기 작업을 동시에 실시, 심은 나무가 초기에 잘 자라지 못해 풀에 덮여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통풍 및 수관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나무 생장을 도와주는 작업이다.

올해 3월 사라봉공원 내 결혼, 출산기념 식수장소에 풀베기 작업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는 주요 도로변 가지지역 내에도 8월 말까지 칩 덩굴제거 사업도 추진, 나무의 생장 여건 개선과 함께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천군, 휴경지에 조림사업 실시

홍천군은 가을철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에 특약용 수종의 나무를 심어주는 유후토지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을에 추진하는 유후토지 조림은 2년이상 묵은 농경지 또는 한계농지 등에 옻나무, 옻나무, 헛개나무등의 특·약용수종을 조림하여 주는 사업으로 9월 10일까지 조림신청을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유후토지조림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산림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일 뿐아니라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주에게는 소득을 창출해주는 사업이니 만큼 토지소유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홍천군 산림과에서는 봄철에 8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금강소나무 육성등 313ha의 면적에 62만본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다.